로보틱스
(Overweight)

2026년 로봇 전망 요약
(답을 찾기 위해 꿈과 희망의 에메랄드 시티로 떠나는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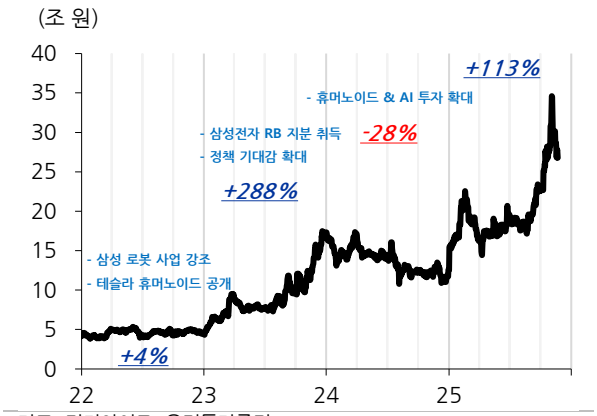
로봇 산업 포인트

초기 양산에 진입하는 로봇 산업은 2026년 진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 돈과 인재가 몰리는 만큼, 기술적 혁신은 계속될 것. 범용 로봇 구현을 위한 로봇 핸드와 AI 확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투자의 논리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작용할 것.

AI 로보틱스/방산/조선/운송 양승윤_ 02)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본 자료는 2025년 11월 20일 발간한 2026년 로봇 전망 자료 요약본.*
- 2025년은 국내 로봇 시총 합계는 휴머노이드 &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속 +113% 증가(11/21 기준). **2026년에도 기대할 모멘텀은 다수.** 다만,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초기 양산 단계 진입하며, **하반기 이후에는 초기 효용성 검증 결과에 따라 로봇 산업 전체가 '진퇴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
- 최근 AI 버블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역시 '기대 선행 → 검증 지연' 구조 측면에서 동일 논리를 완전히 비켜가기 어려움. 하지만, **로봇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 속 '돈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혁신은 계속될 것이란 판단.** 로봇이 풀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는 (1) 범용 조작을 위한 손과 (2) 실세계 행동 생성을 위한 AI. 그 외에도 배터리,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 필요함.
- **손은 로봇이 작업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 범용적인 작업 능력을 갖추기 위해 3지(指) 이상의 인간형 핸드 개발 확대되는 중. 로봇의 조작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촉각 데이터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 핸드 하드웨어(직접 구동 vs 텐던 구동 방식)도 중요하지만, **센서와 센서로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개선이 필요.**
- 로봇 AI는 강화학습으로 보행의 실마리를 풀었고, 이제는 조작(Manipulation)으로 넘어왔음. 피지컬 AI로 LLM의 인지 능력과 로봇의 물리적인 행동을 결합하는 AI 아키텍처가 주류로 부상. 물론 아키텍처 자체에 대한 개선 논의도 있으나, **현재는 로봇의 행동 시퀀스를 생성하는 제어기(Policy)의 고도화에 집중.** 인간이 원격 조작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순 모방학습에서, 강화학습을 결합하여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AI 학습 소스로 시뮬레이션, 웹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도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로봇이 실제 동작을 통해 취득하는 실세계 데이터의 중요성은 불변.**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전 학습 기반 모델에 더해, **실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후 학습(파인튜닝)도 필요해지고 있음.**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기업들의 로봇 데이터 확보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쌓는 매개체**(저가 연구용 로봇, UMI 엑소스켈레톤 핸드 등) 수요가 늘어나고, 실제 로봇 투입이 가능한 **테스트 필드(공장 등)을 갖춘 기업의 경쟁력이 돋보일 것으로 전망함.**
- 로봇 산업 투자 전략: 2026년에도 꿈의 크기가 큰 기업을 쫓는 흐름은 계속될 것. ①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 ② **저평가/리레이팅 가능한 기업,** ③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 중심 관심.**
- ① **Big Trend:** 지금 떠오르는 기술 분야는 단연코 휴머노이드 & 피지컬AI. 아직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 보다는 개발이 확산되는 단계로 연구개발에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에 관심 필요. 공급망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단기로는 액츄에이터 및 액츄에이터 요소 부품, 장기로는 센서/배터리/칩류 관심. ② **Pivoting & Catch-up:** 시대의 변화 속, 기존 사업의 재평가가 기대되는 기업, 혹은 적극적인 사업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쫓는 기업에 관심. ③ **Reference & Data:** 기대감을 넘어 판매 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로봇은 앞으로 데이터의 싸움이 될 것이기에 판매 & 대기업 협력 등을 통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기업에 주목 필요할 것.
- 관심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에스피지, 씨메스

도표 1. 한국 로봇 시총 합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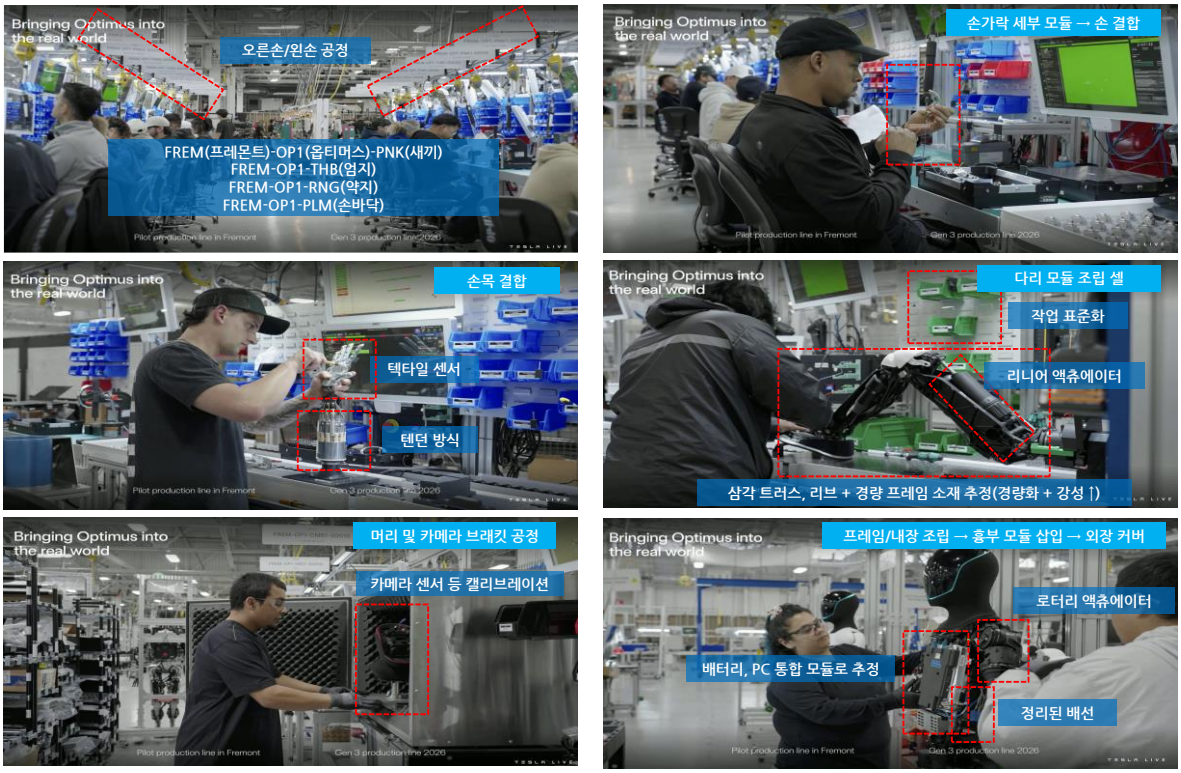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도표 2. 2026 년 주요 이벤트

일정	내용
1 월 6 일~1 월 9 일	*CES 2025 개최(현대차 아틀라스 기대감)*
1~2 월	*테슬라 옵티머스 Gen 3 공개 예정*
3 월 16 일~3 월 19 일	*엔비디아 GTC 2026*
2026 년 상반기 中	*유니트리 로보틱스 IPO*
미정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공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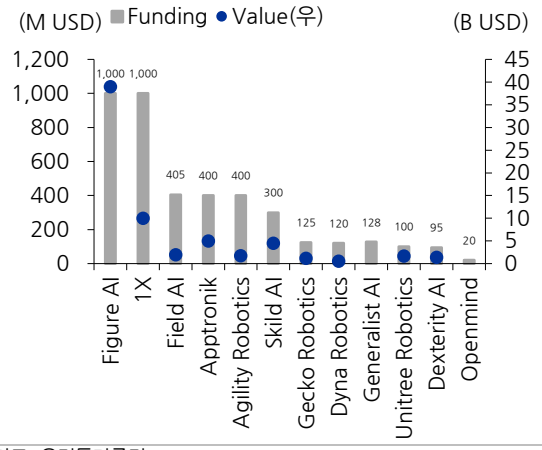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라인 세부 모습: 진심으로 양산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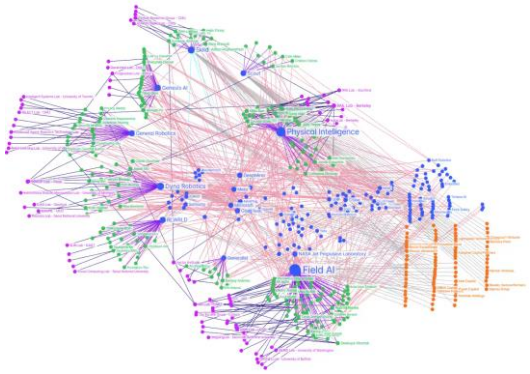
자료: 테슬라, 유진투자증권

도표 4. **해외 주요 로봇 기업 펀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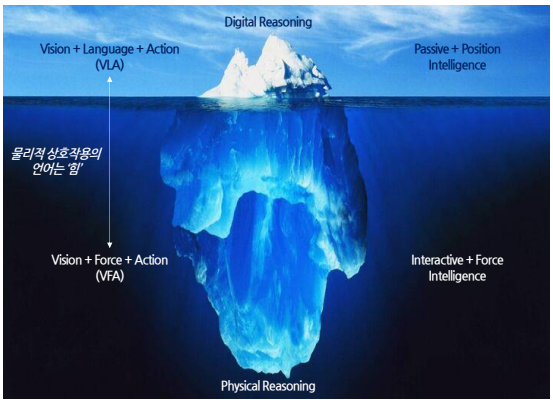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5. **인재와 돈이 몰리는 로봇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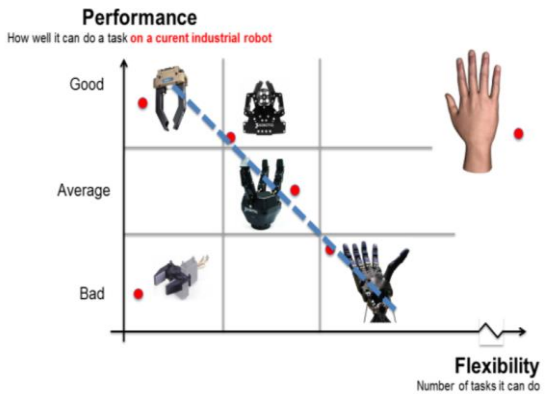
자료: X, 유진투자증권

도표 6. **Physical Reasoning 이 필요하다**



자료: Pulkit Agrawal, 유진투자증권

도표 7. **로봇 핸드별 성능과 범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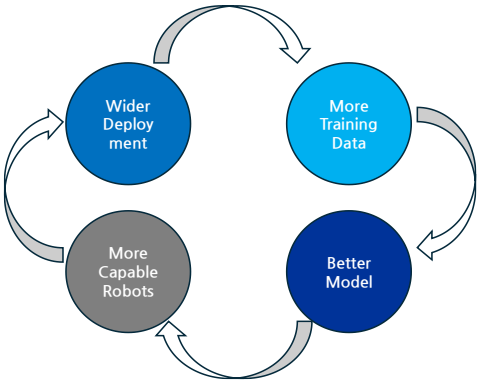


자료: Robotiq, 유진투자증권

도표 8. **로봇의 데이터 피라미드**

자료: 엔비디아, 유진투자증권

도표 9. **로봇 학습 데이터 플라이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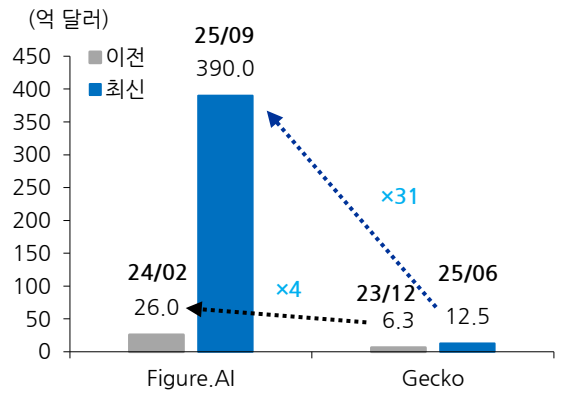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국내 주요 로봇 기업 현황

구분	① Big Trend							② Pivoting & Catch-Up		③ Reference & Data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로봇 핸드	상용화 용도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핸드)	연구개발 용도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핸드)	공급망		재평가 기대	사업 재편	판매 실적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핸드, 부품)	데이터 파이프라인
						액츄에이터	非 액츄에이터				
레인보우로보틱스	○ 휴머노이드 개발 중. 기술력 보유	△ 제어 SW는 내재화. 고차원 사고는 삼성과 협력 기대	○ 자체 핸드 보유. 개발 능력도 있음	△ 상용화 시도. 아직 연구 개발 수준	○ 연구용도로 RB-Y1 출시	○ 액츄에이터 기술 보유. 모터부터 감속기 자체 개발. 감속기는 외부 제 품 사용 중	△ 라이다 센서 등 개발 추진 이력 보유	○ 삼성 인수 등으로 이미 재평가 받았음	○ 협동로봇에서 휴머노이드로 재편 중	○ 삼성향 실적 레코드 보유	○ 삼성 그룹과의 협력 확대 기대
로보티즈	○ 휴머노이드 개발 중. 기술력 보유(뚫망)	△ 기 개발된 RFM 파인튜닝하여 개발	○ 자체 핸드 보유. 개발 능력도 있음	△ 상용화 시도. 아직 연구 개발 수준	○ 연구용도로 AI Worker 출시	○ 액츄에이터 기술 보유. 모터도 내재화 추진. QDD로 확장.	△ 개발 관심 있음	○ 연구 개발 확대 속 재평가 받았음	○ 액츄에이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핸드로 라인업 다변화 성공	○ 국내외 다수 레퍼런스 확보 중	○ 자체 데이터 팩토리 운영 계획
에스피지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미해당	- 미해당	○ 감속기 자체 개발. 액츄에이터로 확장	X 액츄에이터, 감속기 중심 구조	○ 감속기 납품 레코드 및 액츄에이터 개발 대비 상대적 소외	○ 감속기에서 액츄에이터 기업으로 전환 중.	○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다수 납품 실적 보유	- 미해당
씨메스	X 미개발	△ 기 개발된 RFM 파인튜닝하여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도 관심	X 미개발, 손 협업 관심	○ AI 솔루션(몰류 등) 상용화 단계	- 미식별	- 미해당	○ 자체 3D 센서 보유	○ 납품 실적 및 AI 역량 대비, 데이터 경 쟁력 고려, 상대적 소외	△ SW 중심 구조	○ 쿠팡 등 레코드 보유	○ 물류, 제조 업체 등 다수
두산로보틱스	△ 연구 인력 채용 및 R&D 센터 운영 개시	△ 연구 인력 채용 및 R&D 센터 운영 개시	- 미개발	△ 휴머노이드는 아직 개발 단계 (협동로봇은 상용화)	- 미식별	X 외부 제품 사용 중으로 파악	X 외부 제품 사용 중으로 파악	△ 휴머노이드 역량 확보 시 재평가 기대	△ 협동로봇 중심에서 휴머노이드로 확대	- 미식별	○ 두산 그룹과의 협력 기대감 유효
뉴로메카	△ 휴머노이드 개발 중. 기술력 보유. (모바일 베이스)	△ 기 개발된 RFM 파인튜닝하여 개발	△ 과거 인디핸드 개발 이력 보유	△ 상용화 제품으로 시도 중이나, 레코드 미확인	○ 연구용도로 활용 가능	○ 액츄에이터 기술 보유. 모터부터 감속기 자체 개발.	- 미식별	△ 휴머노이드 사업 및 액츄에이터 기술력 보유 대비 상대적 소외	○ 협동로봇 기업에서 다수 라인업 확장 중	- 미식별	△ 자체 데이터 팩토리 운영 계획
알에스오토메이션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미해당	- 미해당	△ 내재화 추진	△ 엔코더 센서 보유	△ 액츄에이터 등 신규 제품 라인업 확장 시 재평가 가능성	○ 엔코더/제어기기에서 액츄에이터로 확장 중	- 미식별	- 미해당
원익홀딩스	X 미개발	X 미개발	○ 자체 핸드 보유. 개발 능력도 있음	△ 상용화 가능성 있으나, 아직 연구 용도 중심	○ 연구용도로 알레그로 핸드 출시	X 외부 액츄에이터 조달 (로보티즈)	△ 촉각 센서는 ETRI와 개발 협력	○ 로봇 핸드로 재평가 받았음	X 로봇 핸드 중심 유지	○ 국내외 다수 레퍼런스 확보 중	- 미식별
하이젠알앤엠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상용화 제품으로 시도 중이나, 레코드 미확인	△ 상용화 제품이나 연구개발 용도로도 활용 가능성 있음	○ 자체 액츄에이터 라인업 보유(QDD)	X 액츄에이터 중심 구조	○ 액츄에이터로 재평가 받았음	○ 모터에서 액츄에이터 기업으로 전환 중	- 미식별	- 미식별
클로봇	X 미개발	△ AI 학습을 통해 인지 및 추론 영역으로 기술을 확장할 방침	X 미개발	△ 상용화 시도. 다만 아직 연구 개발 수준	- 미식별	X SW 중심 구조	X SW 중심 구조	○ 현대차(BD) 관련 기업으로주목	△ SW 중심 구조	- 미식별	- 미식별
에스비비테크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미해당	- 미해당	○ 감속기 자체 개발. 액츄에이터로 확장	X 액츄에이터, 감속기 중심 구조	△ 감속기 및 액츄에이터 납품 레코드 확대 시 재평가 가능성	△ 감속기에서 액츄에이터 기업으로 전환 중.	- 현대차 로보틱스랩 모베드향 납품	- 미해당
유일로보틱스	△ 연구 인력 채용 및 R&D 센터 운영 개시	△ 연구 인력 채용 및 R&D 센터 운영 개시	X 미개발	△ 아직 연구 개발 수준	- 미식별	△ 내재화 추진	- 미식별	△ 휴머노이드 역량 확보시 재평가 기대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에서 로봇으로 확장 중	- 미식별	△ SK On 가능성
삼현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미해당	- 미해당	△ 액츄에이터 개발 중	- 미식별	○ 액츄에이터 관련 기업으 로 주가 관점 재평가 받았음.	○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로봇 부품으로 확장 중	- 미식별	- 미해당
케이엔알시스템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미해당	- 미해당	○ 액츄에이터 기술 보유. 유압 하이브리드	- 미식별	△ 액츄에이터 납품 레코드 확대 시 재평가 가능성	△ 유압로봇 및 액츄에이터 중심 구조	- 미식별	- 미해당
로보스타	X 미개발	X 미개발	X 미개발	- 미식별	- 미식별	- 미식별	- 미식별	- 미식별	- 미식별	- 미식별	- 미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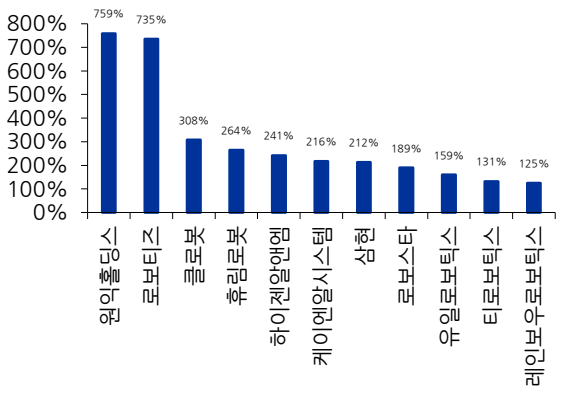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꿈의 크기가 결정 짓는 밸류에이션



자료: 유진투자증권
주)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Gecko: 검사 로봇

도표 12. 국내 주요 기업 시총 상승률('25 년)



자료: 퀀티와이즈,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9.30 기준)